

7.27과 공화국의 여성들

7.27. 일흔번째 전승의 날을 맞이하는 이 아침 저는 손녀의 손에 이끌려 붉은 꽃송이를 순예 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찾아갑니다.

전승기념관의 영웅관에 들어서면 600여명의 영웅들 가운데 붉은 꽃송이인양 참관자들의 눈길을 끄는 14명 여성영웅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피의 용용들이 속에서 사랑과 증오로 불타던 불굴의 여성들, 평범한 모습이었으나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이 나라 어린이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라볼수록 숭엄해지는 마음속에 그들의 웨침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기와 년대는 바뀌어 70년 세월

이 흘렀다. 모든것이 변해도 단 한가지만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 바치는 우리 조선여성들의 열렬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펜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년대의 목격자, 체현자, 증언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다하고저, 후대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웨침을 정으로 쏘아박듯 새겨주고싶어 비록 92살 백발이지만 19살단발머리 종군작가의 심정으로 심장의 붓을 들었습니다.

위훈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민족적영웅 장스 다르크나 조선의 여성영웅 조야와 마리며 그리고 중국의 류호란... 그러나 반망쿠수류탄뭉음을 그려안고 육탄이 되어 달려드는 적 땅크를 맞받아 한복숨 서슴없이 바친 조순옥간호원을 비롯한 우리 위훈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아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장거였습니다.

어찌 간호원들뿐이었습니까. 녀성의 몸으로 비행기를 몰고 적진으로 달려들어 늘름을 무리로 쏟아부은 여성비행사도 있었고 고향땅을 지어주는 적들을 무찌르는 유격투쟁을 벌이다가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추호도 굴함없이 조선녀성의 애국적지조를 지켜 싸운 여성유격대장도 있었습니다.

중으로 불리는 우리 녀병사들의 눈에 걸려든 미제공중비행기는 더이상 《하늘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351고지와 1211고지의 유일한 수송통로였던 남강다리! 벌써처럼 달려드는 적기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며 파괴된 다리를 복구하기를 하루에도 그 몇번, 새 생활의 기쁨 넘쳐나던 자기 집 기둥과 널마루, 첫 살림의 꿈이 고이 담긴 이불장자치 메고나와 메를 달고 전진수송을 보강한 남강마을과 배촌마을의 녀인들.

고지에서 총포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밤중에라도 포탄상자와 탄약상자를 이고 고지에 올랐던 오산산과 상강명지구 녀인들...

《후방도 전진이다!》, 《한치의 땅도 목이치고 말고 한일의 쌀도 더 많이 생산하자!》, 《나가자 파종 전진으로!》...

이 구호들은 후방녀인들의 심장속에서 끓는 피와 함께 고통동진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전쟁의 3년세월, 그 불타는 세피 마지막날보다피를 흘리며 기총탄에 피호리며 쓰러지던 날씨가 우리 녀인들이 지켜낸 고지였습니다.

출지가 날아드는 썩새기들이 퍼붓는 소이탄에 불타는 버가마니를 몸으로 덮으며 식량바리를 전선으로 떠밀어보내던 가련한 그 싸움은 죽음을 각오한 결사전이었습니다.

조국의 충도를 지켜 괴물러 싸우는 아들딸들을 위하는 고향땅 어머니들의 정성을 싣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수없이 이어진 전선수송길에는 처녀운전사들과 처녀기관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엔 어머니이고 안해이고 누나였던 이 나라의 녀인들이 연약한 손에 역세게 보따를 틀어 얹고 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으며 석수호르는 강도에서 발발해 탄약상자를 고이고서서 손에 피가 지도도록 선반을 돌리고 바이브론포를 날리며 총알과 포탄들을 싸우는 고지에 보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이던 한알한알의 쌀, 한발한발의 총탄, 뜨거운 정성이 한뭇뭇 습배인 군복들이 전선에 나가있는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버지, 오빠, 동생들에게는 무적의 힘이 되었고 원수의 가슴속에 박히는 복수탄이 되었습니다.

전선군단 신문주필로 임명받은 후 저는 신문 《강철부대》에 고향소식란을 내고요 싸우는 후방의 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고향소식란은 비록 크기 않았어도 전사들의 가슴가슴에 슬픔을 부각하는 사랑하는 녀인들의 절절한 부탁으로, 침략자를 절규하는 증오와 분노의 웨침으로 메아리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추호도 굴함없이 조선녀성의 애국적지조를 지켜 싸운 여성유격대장도 있었습니다.

중으로 불리는 우리 녀병사들의 눈에 걸려든 미제공중비행기는 더이상 《하늘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351고지와 1211고지의 유일한 수송통로였던 남강다리! 벌써처럼 달려드는 적기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며 파괴된 다리를 복구하기를 하루에도 그 몇번, 새 생활의 기쁨 넘쳐나던 자기 집 기둥과 널마루, 첫 살림의 꿈이 고이 담긴 이불장자치 메고나와 메를 달고 전진수송을 보강한 남강마을과 배촌마을의 녀인들.

고지에서 총포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밤중에라도 포탄상자와 탄약상자를 이고 고지에 올랐던 오산산과 상강명지구 녀인들...

《후방도 전진이다!》, 《한치의 땅도 목이치고 말고 한일의 쌀도 더 많이 생산하자!》, 《나가자 파종 전진으로!》...

이 구호들은 후방녀인들의 심장속에서 끓는 피와 함께 고통동진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전쟁의 3년세월, 그 불타는 세피 마지막날보다피를 흘리며 기총탄에 피호리며 쓰러지던 날씨가 우리 녀인들이 지켜낸 고지였습니다.

출지가 날아드는 썩새기들이 퍼붓는 소이탄에 불타는 버가마니를 몸으로 덮으며 식량바리를 전선으로 떠밀어보내던 가련한 그 싸움은 죽음을 각오한 결사전이었습니다.

조국의 충도를 지켜 괴물러 싸우는 아들딸들을 위하는 고향땅 어머니들의 정성을 싣고 전선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수없이 이어진 전선수송길에는 처녀운전사들과 처녀기관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엔 어머니이고 안해이고 누나였던 이 나라의 녀인들이 연약한 손에 역세게 보따를 틀어 얹고 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으며 석수호르는 강도에서 발발해 탄약상자를 고이고서서 손에 피가 지도도록 선반을 돌리고 바이브론포를 날리며 총알과 포탄들을 싸우는 고지에 보

우를 흘려보내 저였습니다. 어머니수령님 안겨주신 조국해방은 이 나라 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독립인 동시에 자기들의 운명에 드리웠던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폭풍이었고 새 삶으로 인도해준 광명의 빛발이었습니다.

남녀평등권법정이 발표되고 온 나라에 울려퍼지는 《녀성의 노래》와 함께 력사속에 밀려났던 녀인들의 운명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 나라의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조선녀성은 력사속에 자기들의 이름을 금문자로 새겨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전쟁도발계획을 작성한 백악관의 전쟁부나비들은 조선녀성의 허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 녀인들이 수류탄을 품고 적방크밑에 서슴없이 뛰어들면서도, 사형장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영생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길이 남길수 있었는지 원수들은 알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창작수첩에 담겨진 몇편의 전쟁일화가 아닙니다. 녀성해방의 새 세계, 광명의 세계를 안겨준 위대한 인인, 어머니수령님의 손길아래 꽃피던 인간선장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지난날 이름 석자도 없이 쌓아 매, 부덕녀로 불리우던 이 땅의 천덕꾸러기녀인들이 사랑을 바쳐 조국을 지킨 기적중의 기적, 신화의 신화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조선유일의 녀성한 가입이다.

이 고 영웅적승가라고들 합니다. 그 시들은 결코 재능의 산물이 아닙니다.

혼신을 강그리 기울인 량심의 결정체, 심장의 마지막파방울 같은 시들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태양을 따르고 그래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굴할 줄 모르는 조선녀성에 대한 심장의 불같은 토로이고 태양의 빛발아래 가장 역세게 피어나는 이 나라 녀인들에 대한 시대의 격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그 장구한 세월 사회발전의 면모라 일컫는 사치와 허영의 동반자에서도 우리 조선녀성은 조국의 아름다움속에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찾았고 조국의 승리, 7.27의 승리를 지키는 길에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바쳐왔습니다.

특히 녀성으로서, 혁명가로서, 어머니로서, 수령의 전사로서 어떻게 살며 싸우며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신 김정숙어머님을 영원한 삶의 귀감으로 호모하며 어머니에 대한 시와 가사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한생 마음속에 어머니와 한일의 내내원들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

다에 뿌려 두고있는것이겠습니

가.

전쟁의 그 엄혹한 나날부터 오늘까지 저의 심장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항일의 녀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항일혁명 1선에서 무장을 잡고 강력 일제를 상대로 하여 피 어린 싸움을 벌려온 녀전사들이야말로 현대 조선녀성들의 빛나는 귀감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참다운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는 녀성영웅들이다. 그들은 녀성들의 사회적, 인문적평등을 넘넘저 이룩하고 우리 나라 녀성해방의 길을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다.》

해방후 김일성총재께서 어문학부의 학생이었던 저는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협산군령을 넘나들며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의 녀투사들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특히 녀성으로서, 혁명가로서, 어머니로서, 수령의 전사로서 어떻게 살며 싸우며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신 김정숙어머님을 영원한 삶의 귀감으로 호모하며 어머니에 대한 시와 가사들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한생 마음속에 어머니와 한일의 내내원들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

어제날의 《녀녀》들이 전쟁영웅으로

전쟁과 녀성!

그 어느 나라에서나 그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의 재료가 되는 피와 피아니가 바로 연약한 녀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은 울밑에서 시들어가는 봉선화가 아닌 불길속에 어서세계 진화꽃의 꽃으로, 전쟁의 수난자가 아닌 불굴의 수호자의 모습으로 력사에 아로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전우의 선혈로 물든 전호가에서 눈도 감지 못한 금순이를 품으며 저는 가슴속에 피보다 진한 눈물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무서운 복수를,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전쟁당시 우리 녀병사들의 나이는 모두 10대, 20대였습니다.

가련한 싸움터에서 우리는 세월이 준 나이를 먹은것이 아니라 복수의 증오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나날 수많은 금순이들이 단발머리를 날리며 쏟아지는 불비속을 뚫고 부상병들을 구원했습니다.

위생가방에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아니라 천금같은 동지들의 목숨이 들어있고 생각했기에 봉선화 한오리, 한뼘의 가계천마저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남자들앞에 서면 부끄러워 얼굴도 못들던 나이에 여대우같은 사나이들을 들춰내고 내가 쓰러지면 내 등뒤에서 고통지는 동지의 생명이 꺼진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눈보라 하늘을 치받는 태백의 산장을 수리개같이 넘어간 간호원녀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자리 폭탄이 떨어지고 각종 구경의 줄로란이 우박치듯 쏟아지는 고지밑에 3-4m밖에 안되는 화선수술장을 차려놓고 노래를 부르며 수술을 진행했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때로는 쓰러진 전우들을 대신하여 중기사수, 장탄수가 되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전호가의 펄펄새로,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고향집의 만누이, 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전호가에 핀 한뼘이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그들의 모습은 화선용사들의 가슴속에 정다운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모습으로 안겨왔고 소중한 그 모든것을 지켜 용맹하리라는 맹세로 불타게 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들의 희생적투쟁은 조순옥, 안영애동무를 비롯한 간호원영웅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전쟁사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자랑하고 내세우는 녀성들의

수필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전승과 녀성!

그 어느 나라에서나 그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 전쟁의 재료가 되는 피와 피아니가 바로 연약한 녀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은 울밑에서 시들어가는 봉선화가 아닌 불길속에 어서세계 진화꽃의 꽃으로, 전쟁의 수난자가 아닌 불굴의 수호자의 모습으로 력사에 아로새겼습니다.

저에게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간직해온 창작수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창작수첩이라고 하면 문학작품이나 예술적형상에 대해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적혀진것은 예술적형상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전화의 나날 전진준으로서, 종군기자로서 총포탄이 우박치는 전호에서 피로 쓰고 복수로 다듬었던 영웅적전담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영웅강사였던 권혁창동지는 저의 시를 가리켜 원주의 가슴박을 치는 복수의 총탄이라고 불을 붙는 증오의 불길이며 전적의 기발이었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1950년 6월 미제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불길아 타올랐을 때 당시 김일성총재께서 어문학부 학생이었던 저는 맨먼저 전선으로 탄원하여 위생가방을 메고 포화속을 넘나들었습니다.

저의 창작수첩에 적혀진 첫 시도 바로 함께 싸우던 15살 간호원 윤금순에 대한 추도시 《사랑하는 나의 전우야》였습니다.

귀여운 동생과도 같았던 애 어린 전우의 시체앞에서 심장의 불을 뿜듯 울었던 추모시였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부르던 어머니없이 달려오던 금순아 사랑하는 나의 전우야 포탄방을 달리던 네 모습 생생한데 후송하던 부상병을 한몸으로 막고 불타는 고지우에 쓰러졌구나

불러도 대답없는 금순아 너는 15살 꽃망울 꽃잎이 피기도 전에 우리곁을 떠나다니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전시가요라고 하면 누구나 가릴것없이 전승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던 고지의 전진군용사들을 원수적멸에 불리일으키는 노래들에 대하여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전시가요들중에는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노래들도 적지 않다.

전시가요 《열록소야 어서 가자》가 바로 그러한 노래들중의 하나이다.

구성지대 울리는 노래를 들을수록 가락이 담고있는 의미에 생각이 깊어지고 부를수록 후방인민들이 식량바리를 소잔등에 싣고 전선원호길을 다그치던 전화의 광경이 생생히 떠오르게 하는 가사 《열록소야 어서 가자》.

승리에 대한 신심과 량만으로 충만한 이 노래는 원군의 길은 목숨보다 귀중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리의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자작시 《우리는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를 읊었던 저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7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십년이 일곱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저를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창작수첩을 가지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한생의 추억이 갖는 수첩인데 내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서 안된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녀인들에게 귀중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는 그런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작가로서 제 한생의 주제는 녀성이었습니다. 쓰고싶었습니다.

가수

7.27의 승리를 빛내여가는 녀성들

전승 70돐!

눈을 감으면 지금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가슴가득 차오릅니다.

전선동부의 고지우에서 전우들과 함께 승